



2017 성탄

### 성탄절, 하느님께서 이사를 떠나시다.....

수녀님들,

‘퀴리니우스 총독 앞에서 호적 등록을 하는 마리아와 요셉’ 비잔틴 모자이크화를 찬찬히 바라보노라면 아마도 ‘이미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흡사 십자가의 길과도 같았던 긴 여정의 막바지에 이곳 저곳으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난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비탄에 잠긴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아려웁니다.

**성탄절, 하느님께서 집을 꾸리신다. 그리고 이사를 떠나신다. 천상낙원인 하늘을 떠나, 땅에서 ‘방’을 구하신다. - 가브리엘 랑글레(Gabriel Ringlet)**

‘우리 가운데 당신의 천막을 세우셨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육을 취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이 여타의 난민들과는 구별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근원적인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성탄마다, 저는 항상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강생에 관한 관상’(101 번과 그 이하)을 다시 찾아보며, 심오한 의미를 내포한 다음의 세 구절을 묵상합니다.

**‘성삼위께서 넓고 둥근 이 세상에 사람들이 꼭 차 있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엄청나게 크고 둥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있음을 보도록’ 저를 이끌어 줍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닌 세상!)

창세기 1 장 26 절을 보면, 성삼위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삼위께서 취하신 결정, **‘인류를 구원합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탄절, 하느님께서 머리가 약간 이상해지셨다.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이다.’** - G. 랑글레

하느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흐름에 우리도 젖어 들어갑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냅시다.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를 창조하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복음적 형제애를 세상에 탄생시킵시다.

다가오는 총회를 준비하는 올해, 몸에 밴 습관의 변화와 안전한 보호막이 사라질 위험을 두려워 말고, 불확실한 길로 내던져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제안들을 내놓읍시다! 비록 ‘빈방 없음’ 또는 ‘영업 마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용기를 내어 힘껏 문을 밀어봅시다.

**‘성탄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 G. 랑글레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행렬의 보폭에 맞춰 여관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계신 새로 나신 아기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 당신 안에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을 갱신하는 이 성탄 시기에, 새로이 강생하신 주님을 더 잘 따르고 닮는 데 필요한 것들,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더 잘 내어놓을 수 있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서로를 위해 청하도록 합시다.

공동체 수녀님들 한 분 한 분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비비안 수녀